



차 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순천린비료공장건설현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

더 좋은 래일, 아름다운 미래를
확관하며 맞이한 세계 2

가장 백두산으로 6

다함없는 흙모 10

온천문화휴양이 시작되였다 12

비상한 능력의 소유자들 22

제30차 전국사진경연 작품중에서 24

대동체육열기로 동광농가 28

알록반죽자기제조일가 30

김일성종합대학의 자연박물관 32

새로 발굴된 고려2대왕의 무덤 35

전력소비단위로부터 생산단위로 36

동해기슭의 물고기가공기지 38

학생소년들의 즐거운 민속놀이 40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순천린비료공장건설현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순천린비료공장건설현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순천린비료 공장건설총계획과 과학기술적문제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시며 공장건설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현대적으로 건설하는 린비료공장의 모든 요소들과 공정을 자동화하고 철저히 로력절약형공업으로 일떠 세우는것을 지향적인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동조종계통의 믿음성과 생산공정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공장의 기술로력을 튼튼히 꾸리며 기술기능수준이 높은 생산자들을

키우는데 항상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순천린비료 공장건설과 운영과정에 주변생태환경에 영향을 줄수 있는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따져보고 과학적으로 해결대책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아무리

정세가 엄혹하고 가는 앞길에 난관이 막아나서도 우리 위업의 정당성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자기의 힘을 믿고 부단히 높은 책임성과 헌신성, 적극성을 발휘해나간다면 우리의 리상과 포부는 반드시 우리의 손에 의하여 실현될것이라고 신심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글 김필



화보 《조선》은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로 발행

표지: 제28차 세계기억력선수권대회에서 조국의 영예를 떨친 대학생들 사진 최진



새해 주례 109(2020)년을 맞으며 설맞이축하공연이 2019년 12월 31일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었다.

더 좋은 래일, 아름다운 미래를
작관하며 맞이한 새해





학생소년들의 주제 109(2020)년 설맞이공연 《백두산 축복안고 설눈이 내려라》가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진행되었다.

사진 안철룡, 홍광남



백두의 칼바람, 눈보라를 헤치며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른 답사자들

가 자 백 두 산 으 로

조선의 근로자들과 인민군군인들, 청년들속에서 백두산지구에 대한
답사열풍이 세차게 일고있다.

량강도의 백두산지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난 세기 전반
기 일체의 군사적강점하에 있던 조선을 독립하기 위해 조직진행하신
만고의 항일전쟁사가 력력히 새겨져있는 곳이다.

여기에는 밀영지와 숙영지, 전투장소 등 혁명선렬들이 남긴 간고한
투쟁의 자취를 전하는 유적, 유물들이 그대로 보존되어있다.

이러한 백두산지구를 오늘도 조선인민은 따뜻한 계절뿐아니라 눈덮
인 겨울에도 끊임없이 찾고있는것이다.

항일유격대원들이 사선을 헤치며 넘나들던 백두의 친구들을 답사

하는 과정에 귀뿌리를 도려내는듯 한 칼바람을 맞기도 하고 우등불가에
둘러앉아 연못을 녹이기도 하며 천막숙영도 한다.

항일유격대원들의 학습방법을 재현하여 행군로상에서 문답식학습
경연도 하고 밀림속에서 오락회 등도 진행한다.

후대들의 행복을 위해 선렬들이 헤쳐넘은 고난과 시련이 얼마나

큰것이였는가를 체험으로 느끼고 항일전쟁의 피어린 역사를 걸음걸음
새겨안게 하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에 대한 답사과정을 조선인민
은 백두산대학과정이라고 부르고있다.

사진 **홍훈, 변찬우, 공유일**
글 **김선경**





답사자들은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을 답사하며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뽐속깊이 새겨간다.



다 함 없는 흠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고귀한 생애의 전기간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하기에 세계 수많은 나라의 당 및 국가수반들과 각계 인사들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과 흠모의 마음이 담긴 선물들을 오늘도 계속 그이께 드리고있다.

지성어린 선물들의 수는 4만여점에 달한다.

국제친선전람관을 찾은 외국의 벗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받으신 선물들을 보면서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글 최의림



웨. 웨. 뿌썬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드린 《은꽃병》
주제 96(2007)년 2월



싱가포르 웰컴무역 사인유한공사에서 드린 은 공예 《건강축원》
주제 77(1988)년 4월



말리인민민주동맹대표단이 드린 나무조각 《사자》
주제 69(1980)년 10월



세이니 쿤제 니제르공화국 최고군사리사회 의장, 국가수반이 드린 은공예 《락타를 탄 무사》
주제 75(1986)년 9월



파키스탄 라호르 사흐누르 가족공장 지배인이 드린 《금도금커피그릇일식》
주제 71(1982)년 2월



온가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가 드린 제직화 《송령학수》
주제 98(2009)년 10월



바샤르 알 아사드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이 드린 《장검》
주제 95(2006)년 12월



앙드레 콜링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민족재건군사위원회 위원장, 국가수반이 드린 나비날개공예 《대양》
주제 82(1993)년 2월



후세인1세 하셰미트 요르단 왕국 국왕이 드린 수정공예 《베트라의 돌집》
주제 83(1994)년 6월



미국 ABC방송회사 사장이 드린 《탁상시계》
주제 84(1995)년 4월





온천문화휴양이 시작되었다

- 양덕온천문화휴양지에서 -

종합적인 온천치료봉사기지, 다기능화된 복합 체육문화휴식기지로 훌륭히 일떠선 양덕온천문화휴양지가 지난 1월 문을 열었다.

풍치수려한 산천과 현대적인 봉사시설들, 스키장 등이 훌륭한 조화를 이루고있는 이곳을 찾는 손님들은 날마다 기쁨을 금치 못하고있다.

실내온천장과 야외온천장을 오가며 부부온천탕, 가족온천탕, 약온탕을 비롯한 각종 온탕들중에서 마음에 드는 온탕을 선택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들이다.

실내온천장에서 인기있는것은 사람들의 피부를 깨끗이 해주는 희귀한 물고기인 천절어의 봉사를 받는 물고기온천욕이다.

또한 술이온탕, 약쑥온탕, 박하온탕, 금당화온탕 등 10여가지의 약온탕들도 호평을 받고있다.

야외온천장의 소나무숲속에 들어앉은 다락식 온천탕에서 흰눈이 쌓인 한겨울의 경치를 부감하기도 하면서 40℃이상 되는 온천에 몸을 잠그고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대로 여름과 겨울 두계절의 정서를 다 안고있는 한쪽의 아름다운 그림을 방불케 한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감탕치료, 파라핀치료, 모래치료, 안마치료 등 체질적특성에 맞는 여러가지 치료봉사도 받는다.

70℃~80℃의 온천에서 삶아낸 닭알을 맛보는 닭알삶는 터도 야외온천장을 찾는 손님들의 인기를 끌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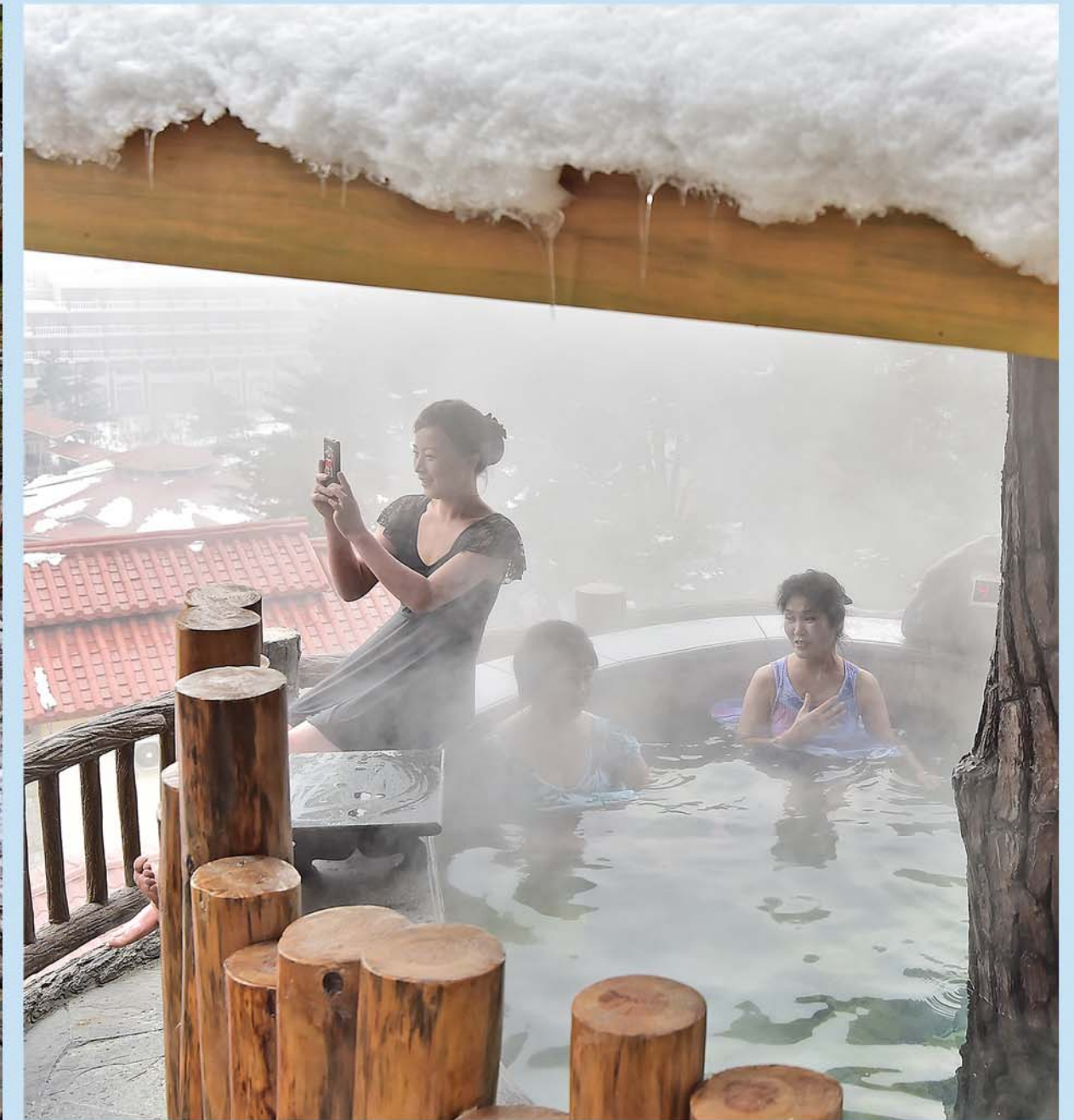
더운 김이 문문 피어나는 온천욕소에서 맛본 패감을 더한층 고조시키는 곳은 세계의 스키주와 어린이썰매구역으로 이루어진 스키장이다.

양덕온천문화휴양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평양고려국제여행사에서는 예약봉사를 진행하고있다.

하루 수백명의 휴양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약봉사에는 안내봉사, 러객봉사, 숙식봉사 등 여러가지가 있다.

사진 안철룡, 홍광남
글 김수정











비상한 능력의 소유자들

지난해 12월 중국 무한에서는 40여개 나라와 지역의 500여명의 우수한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28차 세계기억력선수권대회가 열리었다.

이 대회에 두번째로 참가하는 조선을 대표한 선수들은 김형직사범대학의 김수림, 이성미,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전금명, 김주성, 평양의 국어대학의 류송이, 전유정 학생들로서 모두 성인급경기에 출전하였다.

경기 첫날부터 세계기록을 연이어 돌파하면서 경쟁자들과 심사원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이들도. 특히 3가지 세부종목경기에서 종전의 세계기록을 갱신한 류송이는 7개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11개의 금메달과 8개의 은메달, 9개의 동메달을 획득한 조선의 대학생들은 나라별종합순위에서 첫자리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모두가 대회의 최고상인 국제기억대가상을 수여받았다.

세계기억력선수권리사회 총회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 6명의 선수 모두가 국제기억대가상을 받음으로써 조선은 세계기억력선수권대회의 최고경지를 개척하였다, 세계가 조선의 교육을 들여다 볼 필요성을 인식하였다고 말했다.

각지의 제1중학교와 대학들에 속독교육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져있고 전국적인 속독경연들이 해마다 열리는 조선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속독술을 연마하여 사업에 활용하고있다.

사진 최진, 글 문광봉





제 30 차 전국 사진 경연 작품 중에서



백두산의 눈보라

사진 최철민



별무리 흐르는 향도봉

사진 리영남



백두산정에서 바라본 첩첩산발

사진 리영남



제30차 전국사진경연 작품중에서



해칠보의 파도

사진 김영일



금강산 집선봉의 구름

사진 리충성



칠보산의 가을

사진 리명일

대중체육열기로 물끓는다

사진 리광성, 최원철



새해 주체109(2020)년 1월 12일 첫 체육의 날을 맞으며 다채로운 대중체육활동이 진행되었다. 김일성광장에서는 위원회, 성, 중앙기관 일군들의 집단달리기가 진행되었으며 평양시를 비롯한 지방의 여러곳에서는 배구, 통구 등 다양한 체육경기들이 있었다.



알록반죽자기제조일가



알록반죽자기제조술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고려(918년~1392년)시기에 청자기와 검은 자기, 진사상감자기와 함께 독자적인 개성을 가지고 출현하였던 알록반죽자기는 력사의 이끼속에 묻혀 사라졌었다. 그러던것이 다시 자기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냈다.

이 유산의 계승자는 함경북도 청진시 수남구역 추목동에 사는 평범한 공예가인 유관준(현재 70살)이다. 수십년전 자기문화유산에 대한 자료탐구를 하던 그는 고서에 담겨진 짙막한 사료에서 눈길을 땔수 없었다.

조선유적유물도감 제16권에는 11세기말~12세기 중엽의것으로 얼마간의 유물만이 전해지는 알록반죽자기는 고려시기에 일부 국한된 지역에서만 생산되었으며 제조술은 복잡하고 까다로와 그 비방이 널리 전해지지 못했다고 서술되어있다.

그는 자취를 감춘 알록반죽자기제조술을 재현할 마음 안고 어려운 탐구의 길에 나섰다.

그는 도자기고장으로 알려진 함경북도 경성군의 산지들을 편답하면서 백색, 청색, 흑색 등의 색을 가진 고령토, 사질토를 비롯한 적합한 재료들을 얻는데 이어 자기제조에 가장 합리적인 배합비율을 찾아냈다.

이와 함께 알록반죽자기의 독특한 문양을 도출해내기 위하여 섬세한 예술적기량과 정교한 세공술도 숙달해나갔다.

아무런 참고자료도 없이 10여년동안 피타는 사색과 탐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그는 마침내 알록반죽자기의 재료와 그의 성형, 소성 등에 따르는 기술공정들을 확립하여 놓았다.

주체96(2007)년 2월 유관준은 오랜 력사적기원을 두고있는 알록반죽자기의 첫 작품을 완성하여 파문을 일으켰다.

그후 그는 창작활동을 벌려 수많은 작품을 내놓았는데 그중에서 알록반죽자기꽃병(2012년), 호로형알록반죽자기꽃병(2013년), 칠보산명소장식알록반죽자기꽃병(2013년)을 비롯한 7점의 작품들은 조선미술박물관에 국보로 소장되었다.

사진 안철룡
글 박병훈



유관준



유관준의 맏아들인 유성도 알록반죽자기제조술을 이어가고있다.





김 일 성 종 합 대 학 의 자 연 박 물 관

주체65(1976)년 4월 나라의 첫 자연박물관으로 일떠선 때로부터 대학의 교육 및 과학연구사업에 적극 이바지하여 오고있는 김일성종합대학 자연박물관이 지난해말 새롭게 개진되었다.

박물관의 14개에 달하는 전시홀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 주신 3 680여점의 선물표본들을 비롯한 1만여점의 화석과 동식물, 광물표본들이 전시되었다.

매 홀들에는 표본들을 분류별로 나누어 진렬장과 진렬대들에 주련이 전시하였던 중전의 방식과 달리 해당 지질시대의 환경 또는 나라의 여러 지역 및 수역들의 자연환경 등을 형상한 반경화 등을 설치하고 표본들을 배열하여 놓았다.

그리고 생물표본들은 진화순서에 따라서 전시하였다.

그와 함께 여러가지 전자현시수단들을 많이 설치하여 표본들에 대한 지식을 더욱 공고히 다질수 있게 하였다.

하기에 개진된 자연박물관을 돌아본 학생들은 모든것이 직관적이어서 알고싶은 문제뿐 아니라 그와 련관된 내용들도 함께 습득할수 있어 정말 좋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사진 리명국
글 김미에



고생물전시홀



경관식물전시홀



어류전시홀과 포유류전시홀



새로 발굴된 고려2대왕의 무덤



조선의 첫 통일국가인 고려(918년-1392년)의 수도였던 개성시에서 고려2대왕 혜종의 무덤이 새로 발굴되었다.

조선민족유산보존사와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의 연구자들은 송도 사범대학 교원, 학생들과 함께 개성시안의 역사유적들에 대한 조사 및 발굴사업을 심화시키는 과정에 시의 북동쪽에 있는 송도저수지의 북쪽 기슭 산릉선에서 새로운 왕릉급무덤을 찾았다.

3개의 구획으로 구분되는 무덤의 웃구획에는 봉분(직경 13m, 높이 3m)과 그 보호시설들, 표식비가 있고 중간구획에는 좌우에 각각 한쌍의 문판상이, 아래구획에는 제당터가 있다.

무덤칸의 규모는 길이 4m, 너비 3.4m, 높이 2.2m로서 지금까지 발굴된 고려왕릉들 가운데서 제일 크다.

《高麗王陵》(고려왕릉)이라고 새긴 비석과 청자새김무늬잔받침대, 꽃잎무늬막새기와, 룡모양의 치미(지붕통마루의 두 끝에 설치하는 조각장식)조각들을 비롯한 유물들도 발굴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고학학회에서는 무덤의 형식과 위치, 유물, 역사기록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심의분석한데 기초하여 고려2대왕 혜종의 무덤이라는것을 확정하였다.

혜종은 고려태조 왕건왕과 제2비인 장화왕후 오씨사이에 태어난 아들로써 944년부터 2년동안 고려봉건국가의 왕으로 있었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글 정기상



전력소비단위로부터 생산단위로



평양시 력포구역에 위치하고있는 927닭공장에서 자연에너지를 리용하여 경영활동을 더욱 활성화해나가고있다.

지난해까지 200여kW능력의 태양빛에 의한 발전체계를 확립한 공장에서는 생물질에너지를 리용하는 발전능력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조성하였다.

공장에 도입된 메탄가스에 의한 전력생산체계는 닭배설물의 전처리 공정, 발효공정, 발동발전기에 의한 전기생산공정, 가스리용공정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지금 이 발전체계를 통해 매일 생산되는 메탄가스량은 1 000m³이며 이것은 200kW의 전력생산에뿐아니라 종업원들을 위한 봉사활동에도 리용되고있다.

메탄가스를 생산하고 나오는 부산물은 좋은 유기질비료로서 그대로

농산부문에 쓰이고있다.

공장에는 300kW능력의 버겨가스화에 의한 발동발전체계도 확립되어있다.

실정에 맞게 버겨를 리용하는 대형발동발전체계를 확립할것을 결심한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여러 단위들에서 운영되고있는 발동발전설비들을 조사분석한데 기초하여 발동기 및 발전기의 출력선정과 가스발생로의 설계 및 제작, 버겨가스의 질제고 등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체로 새롭게 해결하였다.

자력으로 앞길을 개척해나가기 위한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노력은 계속되고있다.

사진 최원철
글 최광호



공장에서는 태양빛과 메탄가스, 버겨를 래운 가스 등 자연에너저기원전을 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있다.

동해기슭의 물고기가공기지



강원도 통천군 앞바다는 수산자원이 풍부한 어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해마다 조선동해안에 자리잡은 수산사업소들의 수많은 고기배들이 이곳에 모여들어 어로활동을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통천읍 거성지구에 총부지 3만 8 000여㎡에 연건축면적이 9 800여㎡인 통천 물고기 가공사업소가 새로 일떠서 준공하였다.

여러척의 고기배들을 동시에 댈수 있는 부두에는 고기배의 선창으로부터 물고기들을 신속히 부리울수 있게 하는 현대적인 하륙설비들이 갖추어져있다.

랭동 및 가공장으로 옮겨진 물고기들은 세척, 선별공정을 거친 다음 경사승강콘베아, 공중이동콘베아를 타고 주련히 늘어선 립식

급동기들에 자동적으로 주입된다.

이곳에서 짧은 시간동안에 초급동되어 나오는 물고기랭동블록들은 이어 3 000t능력의 랭동저장창고로 운반된다.

어장가까이에 현대적인 물고기가공 및 보관기지가 건설됨으로써 수산사업소들에서는 연유와 시간을 절약하면서 집중어로계절에 더 많

은 물고기를 잡아 신속히 급동처리하여 인민들에게 생신한 물고기를 공급할수 있게 되었다.

지난해말에 이미 수천t의 물고기들을 가공처리하여 각지에 보내준 사업소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모든 기계설비들을 기술적요구대로 운영하면서 생산능률을 계속 높여나가고 있다.

사진 리명국, 글 박병훈



학생소년들의 즐거운 민속놀이

사진 신충일, 리진혁



